



한-EU FTA시대,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활용 보고서

주한영국대사관

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Foreword

Rt Hon Dr Vince Cable MP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I commend this report to all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investment in Europe.

The EU Korea Free Trade Agreement is the most wide-ranging FTA negotiated by the EU, and will eliminate 97% of tariffs within three years. Furthermore, many tariffs will disappear on implementation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FTA will generate up to 13 billion Euros for Korean companies and generate exporting opportunities for EU goods and services of up to 19 Billion Euros.

Indeed, recent surveys have suggested that over 70% of Korean companies plan to increase their market penetration in Europe once the FTA comes into effect, but that over half feel they need support to do so. This report from UKTI Korea is designed to help identify the opportunities available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how best to take advantage of them.

As more Korean companies do business in and with Europe, more will need to set up or expand their operations in Europe. I strongly believe that there is no better place than the UK for Korean companies to locate their European operations.

There are many reasons why Korean companies should do so: our flexible, skilled and diverse labour market, the speed it takes to set up a business, the ease of enforcing contracts, the access to capital, the fact that UK corporation tax is being cut year on year and, of course, the English language.

As evidence of this, the World Bank currently ranks the UK as the fourth easiest place to do business in the world, and the easiest in the whole of Europe. Thanks to these and other factors, the UK is now home to more foreign owned companies than the rest of Europe combined, with over 200 Korean companies having a base here.

I am confident that this report, combin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U-Korea FTA, will help further cement the UK-Korea business relationship, and I would encourage any Korean business looking to profit from the FTA to read the report and then to contact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for further support.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Vince Cable', written in a cursive style.

Rt Hon Dr Vince Cable MP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UKTI 업무소개

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장기간에 걸친 의사 결정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 정부의 투자 유치 기관인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 UKTI)은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영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영국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정보 및 영국 진출 시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업 부지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국 전역에서 각 기업이 6개월~최대 1년 무료 임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Soft Landing Programme을 운영하여 한국 기업의 영국 투자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주요 네트워크 연계

UKTI는 전 세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이 전 세계의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별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소개하여 한국 기업이 전문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영국 내 사업 부지 선정

영국 진출을 고려할 때 사업 부지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UKTI는 각 기업의 요건에 맞도록 토지나 부동산뿐 아니라 과학 단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의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4. 영국 사무실 오픈

UKTI는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규제사항, 세금, 수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오픈하고, 또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UKTI는 영국에 진출한 기업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UKTI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해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국무역투자청(UKTI) / 주한영국대사관

<http://www.ukti.gov.uk>

Tel: +82 2 3210 5613 / Fax: +82 2 736 6241

Email: invest.korea@fco.gov.uk



목 차

UKTI 업무소개	4
Executive Summary	7
국가정보: 영국	9
한-EU FTA 개요	12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15
산업별 FTA 관련내용 및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17
크리에이티브 산업	18
한-EU FTA 크리에이티브 산업 관련내용	18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	20
캐릭터 개발 디자인 센터	20
출판 디자인	20
마케팅 (광고) 스토리 기획	21
의류 및 액세서리 패션 디자인	21
온라인 게임 기획 및 그래픽 디자인 센터	22
온라인 게임 유럽시장 지역본부	22
기존 캐릭터 발굴 및 상업화	22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23
출판기획	23
모범사례: 오로라월드	24
제약 / 화학 / 에너지 산업	25
한-EU FTA 화학/제약/에너지 관련내용	25
석유화학 제품 제조	26
신약개발 R&D 센터	27
해상풍력발전 R&D 센터	27
해상풍력 발전용 기자재 판매	28
탄소배출권 판매	28
모범사례: Lotte Chemical UK	29
정보통신 / 전기전자 산업	30
한-EU FTA 정보통신산업 관련내용	30
정보통신/가전기기 디자인 센터	31
디지털가전/IT 제품 유럽지역 본부	31
디지털가전 판매 및 서비스	31
이러닝 IT 솔루션 판매	31

셋톱박스 판매	32
스마트미터기 판매	33
CCTV 판매	33
모범사례: 휴맥스	34
자동차 / 조선 / 기계 산업	35
한-EU FTA 자동차/조선/기계 산업 관련내용	35
자동차 부품 제조	36
선박 주요부품 제조	37
선박 설계 및 엔지니어링	38
의료기기 판매	38
모범사례: DTR VMS	39
서비스 산업	40
한-EU FTA 서비스 산업 관련내용	40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서비스	41
동물병원	41
한국식당 프랜차이즈	42
특허 및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42
모범사례: 외환은행	43
금융 / 기타 산업	44
한-EU FTA 금융/기타 산업 관련내용	44
금융상품 개발	45
금융상품 판매	45
사회 기반시설 개보수	45
금융상품 중개	46
모범사례: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국법인	47
영국 비즈니스를 위한 조언	48
감사의 글	50

Executive Summary

2010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 (EU)은 한-EU 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 GDP의 약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교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선진 경제국에서 신흥 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공존하는 EU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한-EU FTA는 한국 기업들에게 무궁무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사인 Cushman & Wakefield사가 유럽 내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European Cities Monitor 2010”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은 다시 한번 압도적인 점수 차로 유럽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올랐다. 이 조사에서 런던은 21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전체 외국 기업 투자의 약 1/5이 영국을 선택하는 등, 영국은 150여 개의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 국가인 영국은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으로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영연방 국가들의 중심국으로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과도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국제성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관문으로서 훌륭한 기반이 된다.

본 보고서는 한-EU FTA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업계 전문가의 조언과 각종 연구 및 시장조사 자료 등을 조사하면서 영국이 금융과 디자인, 서비스 부문 강국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 여타 제조업 부문도 여전히 매력적임을 발견 하였다.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국의 사업 진출 기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패션 디자인, 캐릭터, 출판, 온라인 게임, 광고 등을 포함하는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풍부한 문화적 역량을 훌륭한 교육 및 산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화 하여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리포터와 같은 문화상품이나 아이팟을 디자인한 조나단 이브 (Jonathan Ive)와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영국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배출되었다.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기업들은 유럽 최대 크리에이티브 시장인 영국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다. 제조기업들도 우수한 제조능력을 영국의 산업 디자인 역량과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부문은 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부문이다. 영국에서 등록된 특허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영국 국가보건의 시스템인 NHS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잠재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 시뮬러를 비롯한 생명공학 및 일반제약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국 제약 및 바이오 연구 개발 인력과 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업체나 관련 제조업체들이 영국 및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과 함께 원활한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신기술의 얼리어답터이자, 유럽의 여타 국가들을 이끄는 트렌드를 정립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일부 시장에서 한국의 IT 업체들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인정 받아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 영국은 토요타, GM,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세계 6대 자동차 생산국이다. 한-EU FTA 이후, 한국산 부품을 무관세로 현지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성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모듈을 납품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국의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 서비스나 금융은 영국 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한-EU FTA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사업 서비스 부문도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제도적으로 유사한 싱가포르나 홍콩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로 발전된 런던 금융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Disclaimer:

본 보고서는 한국 및 영국의 해당 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들과의 인터뷰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개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복수의 인터뷰와 기타 자료를 비교, 일관된 논리성을 확인하며 작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터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 내 모든 사항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토의무는 독자에게 있으며, 본 보고서를 작성한 컨설턴트나 UKTI 어느 측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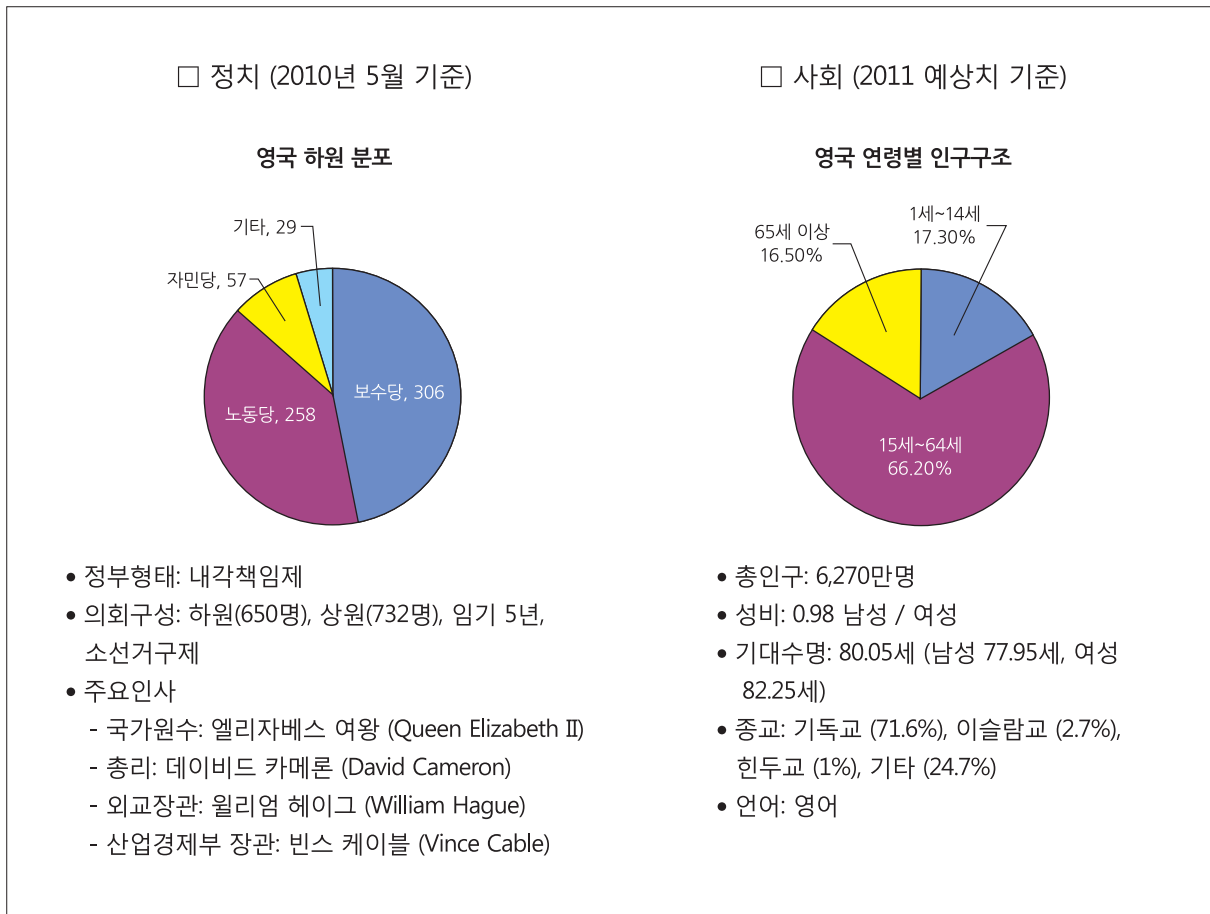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사업 기회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EU FTA로 인한 변화요인 및 기회요인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영국에 사업 진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면 UKTI 또는 IRC Limited에 연락하면 된다.

국가정보: 영국

기본정보

- 영국 (수도: 런던)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이루어져 있는 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음
-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나, 일반적으로 United Kingdom으로 통용됨
- 영국의 국가면적은 약 243,610 제곱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1배 크기임
- 영국은 무역 및 금융 부문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세계 6대 경제대국임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간 선진 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연평균 3%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

부문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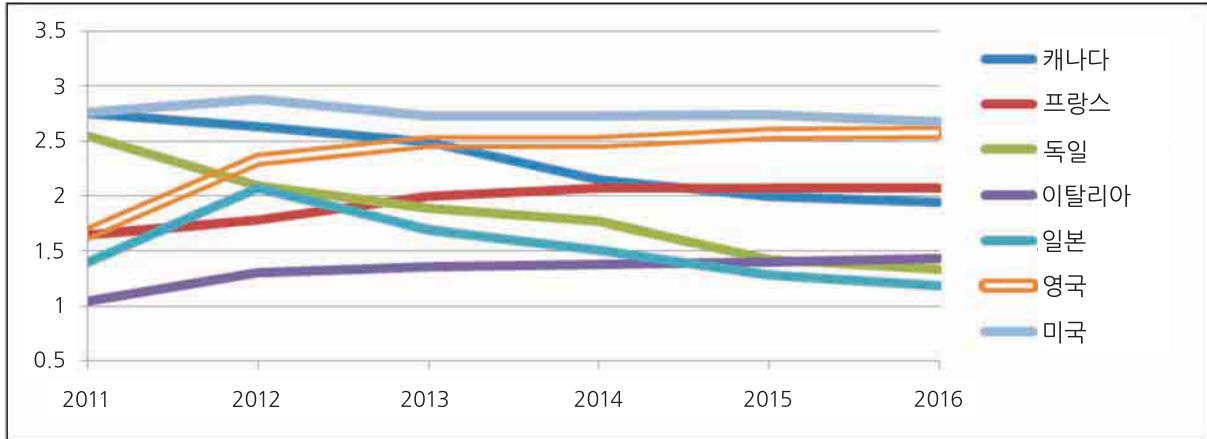


□ 경제 (2010 예상치 기준)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2조 1천 750억 달러 규모의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 무역국이다.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 2위 수출국/3위 수입국이며, 재화·상품 분야에서는 세계 10위 수출국/6위 수입국이다.

영국 경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IMF는 영국이 2012년부터는 유럽 경제 대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2013년부터는 G7 국가 중 두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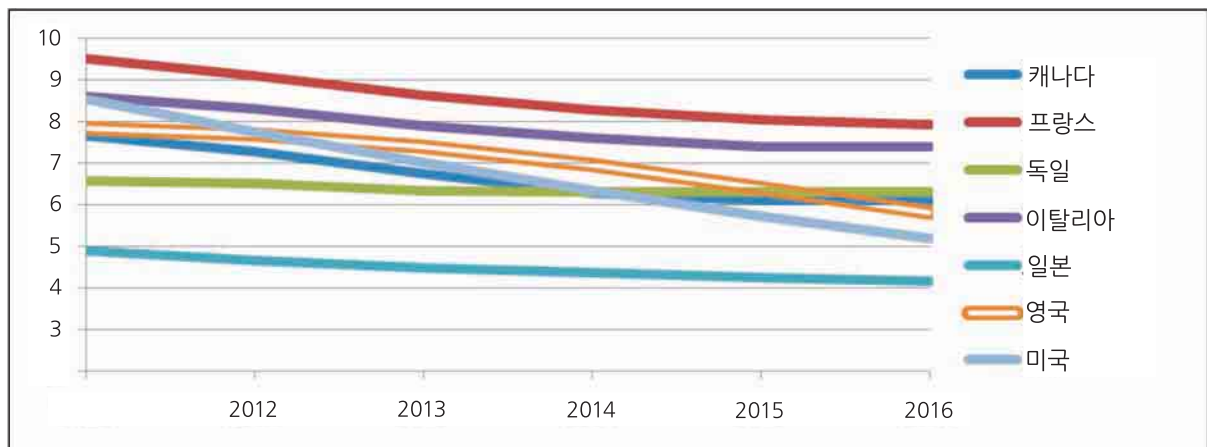
2010년 - 2015년 국내총생산 (전년 대비 성장률)



여타 G7 국가와 비교시 영국의 순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부채 상환 만기일이 여타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시 전반적인 영국의 부채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미래에 발행할 필요 부채 규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의 신용 등급(AAA)은 국가 재무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국의 가용 노동 인구는 3천만명을 상회하여 EU내 2위 규모를 자랑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국의 실업률은 8%로써 미국 (8.9%), 유로존 (9.9%)보다 낮은 수준이다. IMF는 영국의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2016년에는 주요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업률 (%)



영국의 법인세는 향후 4년간 현행 28%에서 23%까지 감소될 예정이며 이는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 계획대로 법인세 감소가 진행될 경우 2014년 영국의 법인세는 G20 국가 중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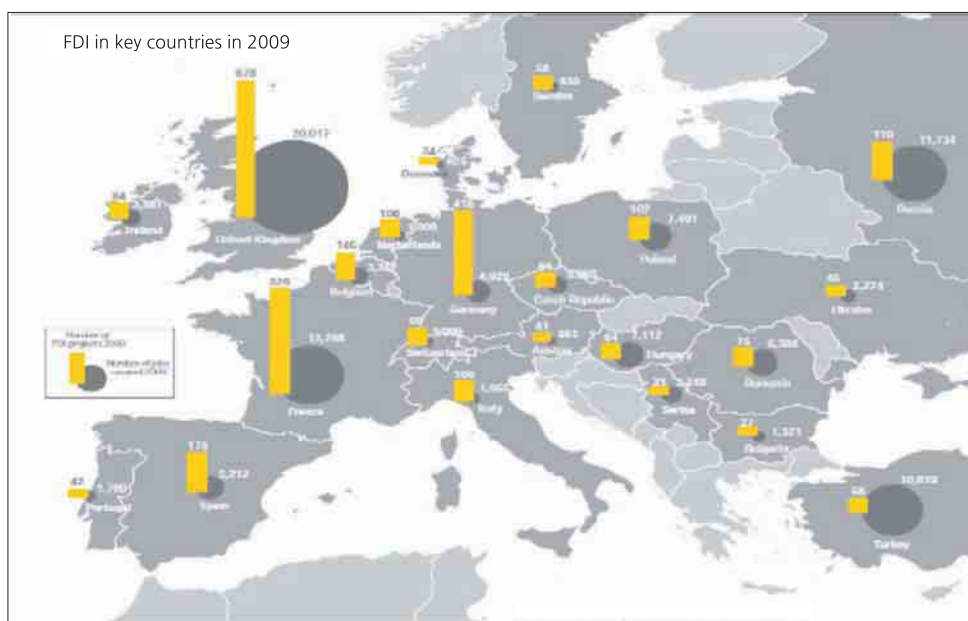
또한, 영국 정부는 2013년까지 특허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여 과학 기술 분야와 같은 혁신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로 인해 영국에 투자 진출하는 해외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영국 파운드화의 실효 환율 지수 (2005년; 100)



글로벌 컨설팅사 Ernst & Young는 유럽에서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건수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 영국을 1위 국가로 꼽은 바 있다.



출처: 외교통상부 "국가 지역정보", CIA "The World Factbook", Ernst & Young, 영국 외무성

한-EU FTA 개요

- 한국은 EU와의 FTA를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한 EU FTA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며 원문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fta.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구성

장	제목	주요내용	
상 품	제1장	목적 및 일반 정의	자유무역시대 창설 목적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철폐에 관한 사항 (양측 관세 양허표 포함) • 전자제품 부속서,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화학물질 부속서 포함
	제3장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규정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포함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의 무역제한 효과 최소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보호,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신속히 하려는 조치
서 비 스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자유화 규범 및 협력 조항 • 분야별 개방 약속과 최혜국 대우 면제 리스트 등
	제8장	지불 및 자본 이동	국경 간 지불, 자본 이동과 관련된 자유화 및 예외규정
규 범	제9장	정부조달	민자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접근 확대
	제10장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의 보호 및 집행
	제11장	경쟁	경쟁법 집행 관련 협력 및 보조금에 의한 경쟁 왜곡 방지
	제12장	투명성	협정 이행과 관련되는 국내법령 등 신속 공포 상대국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무역자유화 진정에 따른 환경 및 노동보호 수준 저하 방지
기 타	제14장	분쟁해결	협정문 위반여부 판정과 이행 절차
	제15장	제도 · 일반 및 최종규정	무역위원회 등 이행기구 설치, 협정 개정 및 발효
의 정 서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특혜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원산지 판정 기준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기존 한-EU간 세관지원 협정을 협정문에 편입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 전반 협력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 (관세) 5년 내 관세철폐 기준으로, EU는 99.6%, 한국은 93.6% 관세 철폐 (품목 수 기준)

-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 관세율 %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스키부츠(8, 13), 인쇄기계(8),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컴퓨터 부품(8), 항공기부품(3~8), 계측기부품(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아세탈수지(6.5), 천연색염색선관(14), 남성셔츠(1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안경(8), 변환 및 안정기(8), 식품가공기계(8) 등	중, 대형(1,500cc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TV카메라 및 수상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계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모사(8),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파티클보드(8), 표면활성제(8), 밸브(8), 베어링(8), 의료용전자기기(8), X선 및 방사선기기(8), 합성고무(8) 등	없음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 (비관세) 특정 국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 인정

- 자동차의 경우 상대국의 수입차량이 국제기준인 UN/ECE 기준(우리나라는 '04년 11월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을 인정
 - 전기전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도입으로 적합성평가절차를 간소화
 - 자율안전확인신고: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
-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DoC):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적합 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 화학물질의 경우 제도운영에서 투명성 증진 및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조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 키로 합의

- (투자서비스) 양측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 한국측: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 추가 개방(우리측 개방범위 총 115개 분야)
 - EU측: 한미 FTA에서 미국이 개방하지 않았던 해운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수의사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EU측 개방범위 총 139개 분야)
 - 협정 상 의무:
 - 일반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최혜국대우
 - 기타의무: 합리적인 국내규제, 투명성 향상, 금융 및 조세 관련 국제 기준 준수

- (무역구제) 보조금 또는 덤핑조사 관련해 WTO 보다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
 - 최소부과원칙, 공익고려 조항, 조사개시 15일전 통보, WTO 미소기준(de minimis)을 원심뿐만 아니라 재심에도 확대적용(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인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금지)
 - FTA에 따른 수입급증 피해에 대비, 양자세이프 가드 설정에 합의

- (정부조달) 양측 모두 일반조달시장(물품, 서비스, 건설)은 추가개방 없이 현행 WTO GPA의 양허 수준을 유지
 -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에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해 국내기업의 EU 민자시장 참여 기회 확대
 - EU는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한국은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개방

- (기술장벽) 투명성 향상 등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측 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마킹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전자상거래) 양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WTO 각료회의 선언을 존중해 양국 간에 영구적으로 무관세 하기로 합의

출처: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http://fta.korea.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 한-EU FTA 해당산업 관련내용

해당 산업 내에서 투자와 무역 등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EU FTA 관련내용들 즉,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합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사업 개발 유망분야

한국 기업들이 영국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크리에이티브, 제약/화학/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조선/기계, 서비스, 금융/기타 등 6가지 산업 군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별 구분은 아래 표에서 세로 열에 표시되어 있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구분할 때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독자들은 연관 산업 군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가지 산업 군 별로 분류된 사업 활용 기회들은 다시 아래와 같은 5 가지 기능 별로 분류되어 있다. 기능별 구분은 본문에서는 제목 오른쪽 옆에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 표에서 가로 행에 표시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관심 있는 사업 활용 기회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제조	연구개발	지역본부	판매	상업화
크리에이티브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	○				
캐릭터 개발 디자인 센터		○			
출판 디자인		○			
마케팅 (광고) 스토리 기획		○			
의류 및 액세서리 패션 디자인		○			
온라인 게임 기획 및 그래픽 디자인 센터		○			
온라인 게임 유럽시장 지역본부			○		
기존 캐릭터 발굴 및 상업화					○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
출판기획					○
제약/화학/에너지					
석유화학 제품 제조	○				
신약개발 R&D 센터		○			
해상풍력발전 R&D 센터		○			
해상풍력 발전용 기자재 판매				○	
탄소배출권 판매				○	
정보통신					
정보통신/가전기기 디자인 센터		○			
디지털가전/IT 제품 유럽지역 본부			○		

	제조	연구개발	지역본부	판매	상업화
디지털가전 판매 및 서비스				○	
이러닝 IT 솔루션 판매				○	
셋톱박스 판매				○	
스마트미터기 판매				○	
CCTV 판매				○	
자동차/조선/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	○				
선박 주요부품 제조		○			
선박 설계 및 엔지니어링		○			
의료기기 판매				○	
서비스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서비스				○	
동물병원				○	
한국식당 프랜차이즈				○	
특허 및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
금융/기타					
금융상품 개발		○			
금융상품 판매				○	
사회 기반시설 개보수				○	
금융상품 중개					○

□ 모범사례

영국 시장에 진출해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범사례는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과 진출형태, 성공요인 및 해결과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모범사례는 각각의 사업 활용 기회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유용하다.



1. 크리에이티브 산업

한-EU FTA 크리에이티브 산업 관련 내용

<p>지적재산권 - 상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등록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법적 불복 청구 기회 부여 및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부여
<p>지적재산권 -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외관(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를 부여 한국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미등록외관은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나, EU의 경우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디자인 모두 보호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품목을 제작,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 - 최소 15년 간의 보호를 부여
<p>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보호기간 (기존: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 금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
<p>지적재산권 - 보호조치의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EU FTA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의 영역까지 규정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 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 사법당국에게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의무 규정 통관보류 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
<p>문화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 한-EU 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에서 협력의 틀 구축 출판물 관련 박람회, 세미나 등 개최, 공동출판 및 번역 증진, 전문가 교류 확대

<p>관세철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 • EU측 관세 양허 (괄호 안은 현재 관세율 %) - 즉시철폐: 스웨터(12), 편직물(8), 폴리에스테르직물(8), 남성셔츠(12) - 3년 후 철폐: 기타신발(16.8) - 5년 후 철폐: 순모직물(8) • 한국측 관세 양허 (괄호 안은 현재 관세율 %) - 즉시철폐: 직물제의류 (8~13) - 7년 후 철폐: 순모직물(13)
<p>서비스 및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투자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양허함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 (제조)

- EU는 현재 한국 이외에도 페루, 콜롬비아, 인도, 이집트 등과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임
-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영국에서 제조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인 후, 다시 한국을 포함한 EU의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무관세 혜택 활용가능
- 영국의 의류 및 섬유산업은 2007년 기준, 150,000명의 산업인력과 약 16조원에 달하는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의 의류 생산 중 2/3가, 신발 생산 중 90%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럭셔리 및 트렌드 선도 패션 제품의 생산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패션 산업에서 영국의 높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영국에서 제조 되었다는 점(Made in the UK)은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음
- 한국의 의류 업체가 고급 의류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음

● 캐릭터 개발 디자인 센터 (연구개발)

- 한-EU FTA는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함
- 캐릭터 산업은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만화와 미술 등을 표현수단으로 하여 고도의 창작능력과 기획력을 통하여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영국은 에딘버러 대학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찰스 레니 매킨토시의 글래스고우 미술대, 런던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대학 등 캐릭터 개발을 위한 튼튼한 학문적, 인적 토대를 갖추고 있음
- 영국은 강력한 문화, 지식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텔레토비, 토마스 기관차, 해리포터 등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캐릭터를 개발한 캐릭터 강국임
- 영국법인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를 개발한 한국의 오로라월드 경우처럼, 영국인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 많음
- 제조업 위주의 한국기업이 고부가가치 캐릭터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영국은 캐릭터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센터로서 최적지가 될 수 있음

● 출판 디자인 (연구개발)

- 한-EU FTA는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디자인에 대해서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여, 디자인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한미 FTA에 비해 강화된 디자인 재산권 보호 의지를 나타냄
- 현대 출판물은 기존의 전형적인 '책'의 형태를 벗어나는 창의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유아, 아동을 위한 출판물의 경우 책과 장난감, 학습 교구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디자인 업계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디자인으로 유명함
- 영국의 디자인 업계는 환경 보호, 인권, 재생에너지 등 전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사회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우수한 능력을 보여줌
- 한국 출판사는 영국에 출판물 디자인 센터 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출판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마케팅(광고) 스토리 기획 (연구개발)**

-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전 세계인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마케팅 스토리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EU FTA 체결은 양측의 물적,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여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스토리 기획 관련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영화 산업: 영국 영화산업의 전 세계 점유율은 15%에 달함 (2008)
 - 애니메이션 산업: 300여 개의 업체와 4,700여 명의 관련 인력
 - 출판산업: 8,500여 개의 출판업체와 167,000여 명의 관련 인력
- 세계 최대의 블록 시장인 유럽의 중심국이자, 세계 최대 단일국가 시장인 미국과 깊은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는 영국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상업적 스토리 기획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음

● **의류 및 액세서리 패션 디자인 (연구개발)**

- 버버리 트렌치코트로 대변되는 영국의 전통적인 패션 디자인과 함께 핑크, 미니스커트 등으로 대변되는 영국 패션계의 도전적인 실험정신은 전 세계 패션 디자인의 트렌드를 선도함
- 패션 산업에서 영국의 높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다면 영국에서 디자인되었다는 점 (Designed in the UK)은 중요한 마케팅 요인임
- 한-EU FTA는 등록 디자인, 혹은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투자로 파생되는 이익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 한국의 의류 및 액세서리 업체는 영국의 디자인센터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선도적인 영국의 패션 디자인 역량과 영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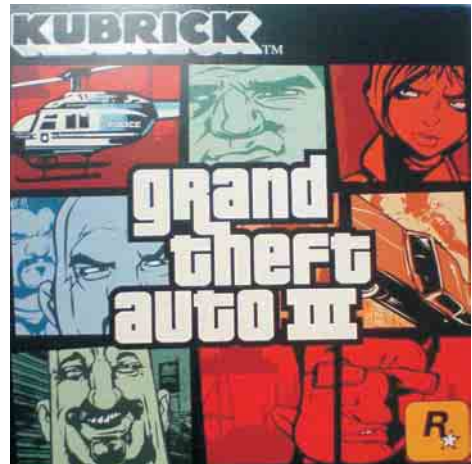


● 온라인 게임 기획 및 그래픽 디자인 센터 (연구개발)

- 디지털게임 산업의 투자자유화율은 한-EU FTA 이전에도 이미 100%에 가까웠음. 그러나 한-EU FTA로 내국민대우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었던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임
- 따라서, 게임산업에 있어서 아시아 시장에 익숙한 한국의 게임 개발 인프라와 유럽 및 미주시장의 트렌드에 능통한 영국의 게임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양자 간의 인적, 물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게임 기획은 해당 시장의 트렌드나 선호도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으므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게임을 제작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기획작업을 진행하거나, 현지 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 있음
- 영국에는 3,000여 개의 게임 퍼블리싱 업체와 6,000여 명의 게임 전문인력이 있어 이들의 감각적이고 숙련된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영국은 유럽 내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게임 시장이며 전 세계 게임업체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장소로서, 한국의 게임업체들이 게임기획 또는 게임그래픽디자인 조직을 확보하기에 적절함

● 온라인 게임 유럽시장 지역본부 (지역본부)

- 영국은 전 세계 3대 규모의 인터랙티브 게임 시장임
- 영국은 유럽 최대의 디지털 게임 시장이며 세계 4대 게임 생산국임 (영국의 게임 생산은 전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
- 영국 게임시장의 구조는 50% 이상이 비디오 게임이지만, 비디오 게임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소셜네트워크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는 추세임
- 3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게임업체들이 영국에 유럽본부를 두고 있음
- 게임업체의 유럽본부가 영국에 밀집하면서, 관련 마케팅 업체 및 투자 지원 전문업체 등 훌륭한 사업적 인프라가 구축됨
-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영어 사용국으로서의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상업적 크리에이티브 기반의 강한 경쟁력 등을 근거로 글로벌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영국을 유럽본부의 최적지로 여기고 있음



● 기존 캐릭터 발굴 및 상업화 (상업화)

- 영국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디자인으로 유명함
- 환경 보호, 인권, 재생에너지 등 전 세계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사회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우수한 역량을 보여줌
- 우수한 제조능력과 한국 및 아시아 시장 접근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 완구제조업, 유아 및 어린이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제조업 등으로부터 캐릭터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영국에서 이미 개발된 캐릭터 중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발굴하여 적절한 한국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상업화 대행 서비스의 사업 가능성 있음
- 한-EU FTA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여, 관련 사업에 있어 저작자와의 계약관계가 더 중요해짐

●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상업화)

- 한-EU FTA에 포함된 문화협력의정서에는 출판물 관련 박람회 및 세미나 등 개최를 명시하여 양측의 출판물 교류 활성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영국의 출판시장 규모는 연 190억 파운드 (약 32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3억 파운드 (2.2조 원)는 수출을 통한 매출임
- 영국의 출판업계는 다양한 형태와 콘텐츠가 결합된 저작물로 유명함
- 문예연감 자료에 의하면, 한국 출판물 중 번역서의 비중은 약 28%에 달함
- 자본력을 갖춘 한국 출판사나 저작권 에이전시의 경우 직접 영국시장에 진출하여 저작권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외국 작품의 경우 한국 내 출판권을 경매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경우 많으나, 영국에 진출할 경우, 유럽 및 전 세계의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할 기회가 더 많아짐
- 가능성 있는 작가들과의 저작권 직접 계약을 통해 경매 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들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기회 모색 가능

● 출판 기획 (상업화)

- 한-EU FTA는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에는 공동출판 및 번역 증진, 전문가 교류 등을 규정하여 양측의 출판부문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짐
- 한국 출판업계는 그 동안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외국 작품 번역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데 주력했음
- 그러나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가 미국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영하, 조경란, 한강 작가 등이 해외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국 출판사는 이러한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창조할 필요성 커지고 있음
- 영국은 유럽의 중심지인 동시에 영어권인 미국과의 긴밀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출판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임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영국에 기획 센터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기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영국의 양 조직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출판하는 공동 출판 모델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출판물의 디자인, 일러스트 및 인쇄, 제본까지 통일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모범사례: 영국의 디자인 역량을 활용해 대표 캐릭터 개발한 '오로라월드'

산업 / 기능	캐릭터 / 연구개발	진출방법	신규법인 설립 / Limited company
<p>영국법인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rora World UK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Aurora World UK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지역 내 판매 및 물류 본부 - Aurora World UK 내 디자인 관련 인력은 지속적으로 선진시장의 디자인 트렌드를 본사 디자인 연구소와 공유 Aurora World UK는 동물보호, 탄소감축 등 환경, 인권 등 주요이슈 선점 능력이 뛰어난 영국의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멸종위기 동물의 캐릭터화' 라는 '유후와 친구들' 컨셉 설정에 큰 역할을 하였음 		
<p>성공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로라월드(주)의 대표캐릭터 '유후와 친구들'은 현재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 오로라월드(주)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글로벌 PD (Product Development) 미팅을 개최하여 전 세계 시장 트렌드를 교류하는 등 글로벌 시장 흐름의 공유를 중시함 Aurora World UK는 유럽의 중심지인 동시에 언어 및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선진시장의 허브인 영국시장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는 전 세계 멸종 위기 동물들을 모델로 개발되면서 스토리 기획 측면에서도 선진적, 교육적 이슈를 확보할 수 있었음 		
<p>해결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영국의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고정비용의 지출이 한국보다 높아 이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의 계약문화를 고려하여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함 		

2. 화학 / 제약 / 에너지 산업

한-EU FTA 화학 / 제약 / 에너지 관련 내용

<p>화 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가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 •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사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관련, 우수실험실 운영원칙 (GLP, Good Laboratory Practice)와 실험지침 (Test Guidelines) 분야에서 협력 • EU측 관세철폐 양허 (현재 관세율%): 아세탈수지(6.5) 등은 즉시, 합성수지 (6.5) 등은 3년 • 한국 측 관세철폐 양허 (현재 관세율%): 기타정밀화학원료 (1~8) 등 즉시, 기타정밀 화학제품 (5~8) 3년
<p>제 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의약품 자료보호: 신약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로서 TRIPS협정 제39조를 충족시키는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
<p>기후변화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당사자가 모두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 다자간 환경협정 중 이행 의무 대상은 양 당사자가 모두 비준한 협정으로 한정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기 합의 도출 • 기후변화협약 이행공약 - 발리 행동계획에 따라 향후 국제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협력하기로 합의
<p>신재생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등 풍력발전 부품의 유럽 수출 시 관세 8% 철폐 • 비관세: 한-EU FTA 비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09년 유럽을 방문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녹색 성장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등 유럽 각국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석유화학 제품 제조 (제조)

-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경우, 대부분 중국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에 생산시설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의존도가 큰 상황임 (한국 화학물질 수출의 중국시장 의존도 55%, 2009, 물량기준)
-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시장에 진입할 필요성 높아짐
- 한-EU FTA로 인해 관세율이 점차로 철폐되는 상황이지만, 대량생산 위주의 일반 화학물 질의 경우 물류비용을 고려할 때 시장에 근접한 생산시설이 필수
- 영국은 높은 인력수준과 유럽 시장으로의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 등으로 유럽시장을 겨냥한 생산시설 입지로서 적합함



● **신약개발 R&D 센터 (연구개발)**

- 한-EU FTA는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이나 '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통해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이익보호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함
- 비아그라 (화이자)를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품 75개 중 15개가 영국에서 개발 되는 등 영국은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
- 영국정부는 외국 제약업체들의 영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내놓음
 - 약가규제제도 (The Pharmaceutical Pricing Regulation Scheme): 새로 개발되어 출시된 신약의 경우, 제약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간 특정 가격대 형성을 합의하면 이를 NHS에서도 수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 환자접근제도 (Patient Access): 기존에는 신약을 출시하려면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 (NICE)라는 기관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나 안전성 등을 검증 받아야 임상단계 진입 가능. Patient Access 제도는 NICE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약이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경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 2013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영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소득에 대한 10% 고정세율만을 적용하는 제도
- 2004년 이후 한국 제약업체들이 소유한 기술 라이선스를 영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영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바이오 시뮬러를 비롯한 생명공학 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잠재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생명공학 및 일반제약 업체들이 영국 정부의 상기 지원책을 활용한다면 세계 어느 곳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특허 등록 후 상업화의 경우 고정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영국 정부의 국가보건 시스템인 NHS의 고정적인 판매루트 확보가 가능한 영국에 직접 진출하는 사업 모델이 유효함

● **해상풍력발전 R&D 센터 (연구개발)**

- 영국은 세계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임
- 2008년 기준, 영국의 우수한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인큐베이터와 연구개발 센터 등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임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풍력, 태양광, 조력으로부터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008년, 영국은 연 35조 원 규모의 에너지 및 관련제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덴마크를 제치고 해당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국이 되었음
- 해상 풍력발전을 실험하기에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영국은 소형 풍력 시스템으로부터 대형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실험가동이나 연구개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데이터 이외에도 물리적 강도, 에너지 생산효율 등 실제적으로 해상단지를 운영하며 획득한 각종 실증 데이터가 필수적임
- 한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업체들은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 실증데이터가 부족하여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임
- 한국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영국의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잘 갖추어진 연구 개발 환경은 이상적인 연구개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해상풍력발전 발전용 기자재 판매 (판매)**

- 현재 영국은 11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1GW에 달함
- 추가로 건설 진행 중인 풍력발전소들 중 4GW 분량의 사업들이 이미 건설 착수 또는 사업허가난 상태이며, 각 단계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사업들을 합하면 40GW의 규모임
- 한-EU FTA를 통해 EU측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한국산 풍력터빈, 블레이드, 변압기 등이 영국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은 소수의 대형 터빈보다는 다수의 중소형 터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2~3MW 급 중소형 터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풍력발전기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및 해상구조물 업체이므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입증된 단지 개발능력, 조선기술, 해상 구조물 설치기술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탄소 배출권 판매 (판매)**

- 한-EU FTA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있음
-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함
- 영국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 영국의 저탄소 시장 및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 500만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함
- 영국의 저탄소 환경 관련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임
- 한국의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관련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탄소배출 의무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 탄소배출 감소 사업을 수행한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선진국 내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수행함
- 한국 CDM 사업자들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확보된 탄소 배출권 매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고객군 중 하나가 영국 기업들임
- 한국 CDM 사업자들은 현지에 판매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으로 영국에서의 탄소배출권 판매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모범사례: 영국진출 첫해부터 흑자 기록한 Lotte Chemical UK

산업 / 기능	• 화학 / 제조	진출방법	• 인수합병 / Limited company
영국법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케이피케미칼의 100% 투자기업인 Lotte Chemical UK Ltd.는 2009년 12월에 설립 되었으며, 2010년 2월에 영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여 같은 해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매출 발생을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으로 영국의 기존 유휴 생산시설 인수 • 생산 제품은 PET 및 PTA이며, 주된 시장은 유럽임 • 설립 첫해부터 약 1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모범을 보여줌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지역 및 유럽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진입시기 선정 • 주요 시장인 유럽시장에 대한 영국의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 •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유휴 생산시설 인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비용 절감 - 시설 확보기간을 단축하여 적절한 시장 진입 시기를 맞춤 - 유휴시설 인수를 통한 인력고용으로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 높은 수준의 영국 현지 인력이 사업 초기 정상화에 기여함 현지 인력에 대해 특히 다음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성 - 논리적인 업무처리 능력 - 자율적인 근무태도 		
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직원들, 한국 직원에 비해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적극성 개발필요 • 공장 운영을 위한 연관산업 내 협력업체들의 기술력, 인적자원 개발필요 • 업무보다 사생활을 우선시 하는 근로문화를 고려한 직원관리 필요 • 높은 물가로 인한 비용 통제의 중요성 		

3. 정보통신 / 전기전자 산업

한-EU FTA 정보통신 / 전기전자 산업 관련 내용

<p>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로 한국 및 한국기업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판매 신장 예상됨 • 유럽연합은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 (9~12%), 진공청소기(2.2%) 등의 가전기기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전자레인지 (5%) 등은 3년, 칼라TV(14%),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등은 5년의 양허 기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함 • 한국산 셋톱박스(14%) 및 CCTV 제품 (4.9%)에 대한 유럽 관세 철폐
<p>정부 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 시장은 양측 모두 1,500만 SDR (229억 원) 이상의 사업 개방 (현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 수준의 개방임) EU 측은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양허 대상임 • 현행 GPA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되, 추후 GPA 양허 내용 변경 시 한 EU FTA에도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 • 입찰참가 및 낙찰 시 상대국 내 과거 조달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하되,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p>설립 및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투자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상호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상호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 면허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직능 단체 간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제도화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정보통신 / 가전기기 디자인 센터 (연구개발)

- 영국은 아이팟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를 배출한 산업 디자인 강국임
- 우수한 디자인 인력을 배출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디자인 스쿨 등 영국의 디자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임
- 펜타그램 (Pentagram)이나 네이티브 디자인(Native Design) 등 세계 최고 산업 디자인 전문업체를 비롯해 유럽 디자인 전문업체의 약 1/3이 영국에 입지를 두고 있어 이들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이 가능함
- 한-EU FTA는 통관보류 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디자인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영국의 산업 디자인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런던에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 운용 중
-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유럽 디자인 센터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전하며 런던이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함

● 디지털가전 / IT 제품 유럽 지역 본부 (지역본부)

- 영국은 유럽 및 중동 일부 지역을 관할하기에 적절한 사업적 인프라, 즉, 교통, 통신, 인적자원 등을 갖추고 있음
- 유럽시장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영어를 사용하며, 인력과 물자의 효율적 물류 체계를 갖춘 영국은 유럽 가전 기기 시장을 관할하는 판매 및 서비스 본부로서 최적지임

● 디지털가전 판매 및 서비스 (판매)

- 영국은 2007년 기준 100억 파운드 (약 17조 원) 규모의 유럽 최대 가전기기 시장임
- 한-EU FTA로 냉장고 (관세율: 1.5 ~ 2.2%), 에어컨 (2.7%)을 비롯한 EU측 수입관세가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철폐됨
- 영국의 가전기기 유통시장은 본사단위 계약 관행으로 일단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서비스 및 관리에 있어서 제품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임
- 현지 진출 사업자들은 가전 기기의 경우에도 판매 후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함
- 다민족 국가이자 유럽의 중심지인 영국은 유럽, 중동,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 무대로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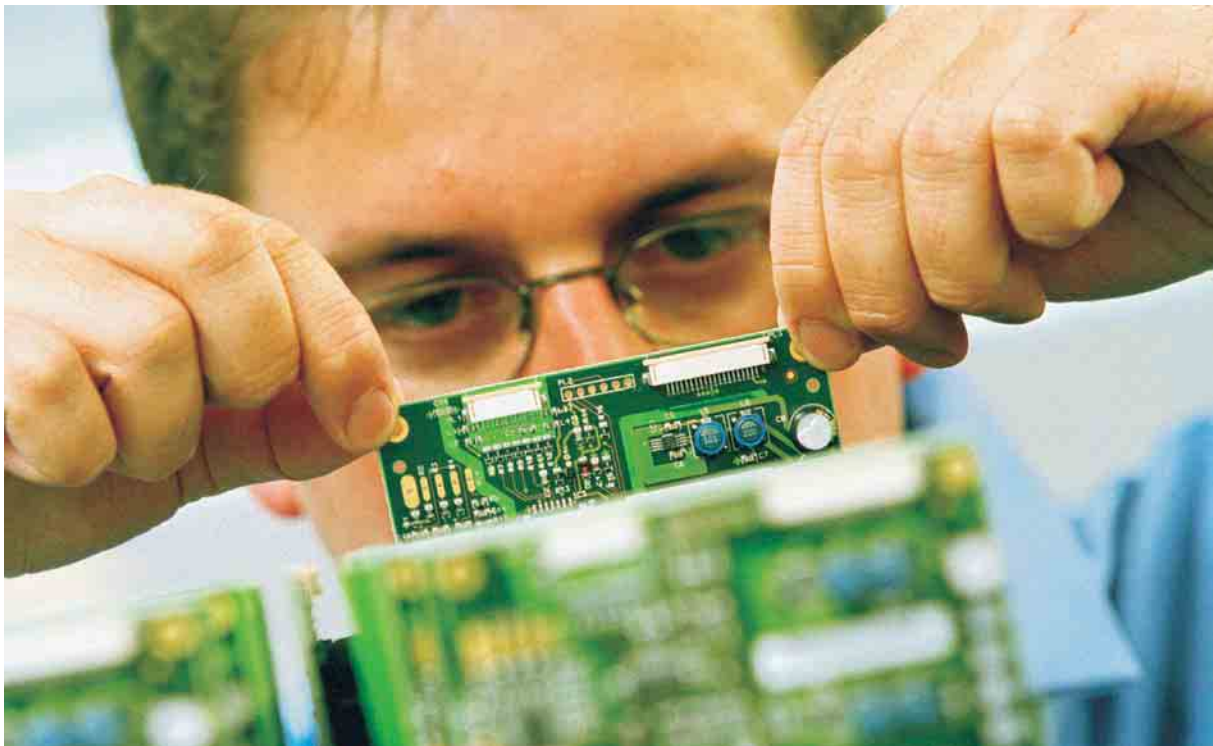
● 이러닝 IT 솔루션 판매 (판매)

- 한국은 IT 기반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관련 인프라 업체들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은 전통적인 교육산업 강국으로서, 전 세계 영어교육의 중심지이며 관련 콘텐츠와 노하우가 풍부함

-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영국의 교육 서비스 업체들도 온라인 교육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동영상 강의, 지불 시스템, 출결석 시스템 솔루션 등을 제작, 제공하는 한국의 사교육 관련 IT 솔루션 업체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의 IT 솔루션 업체들은 영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한국의 IT기술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찾아볼 수 있음

● **셋톱박스 판매 (판매)**

- 한국산 셋톱박스는 이미 유럽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음
- 한국의 셋톱박스 선두 제조업체인 휴맥스의 경쟁상대는 노키아, 필립스 등 현지 기업들이며, 저가 중국산과 경쟁구도 아님
- 한-EU FTA로 현 14%의 유럽 측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기술력과 동시에 가격에서 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유망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국은 유럽 전역의 셋톱박스 수출 판매기지로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영어권 국가로서 언어소통에 이점
 - 전 유럽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 편리
 - 영국의 유통업체는 중앙집중구매 (본사에서 일괄 계약 구매)라는 상 관행을 가지고 있어, 일정 단위의 점포들과 개별 계약, 판매해야 하는 여타 지역에 비해 판매자에게 유리
- 영국 PC Retail 2010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2009년 디지털셋톱박스 시장의 규모는 판매량 기준 약 1210만 대이며, 이 중 약 1000만 대가 위성수신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PC Retail 2010 조사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료 셋톱박스 시장은 향후 3~4년 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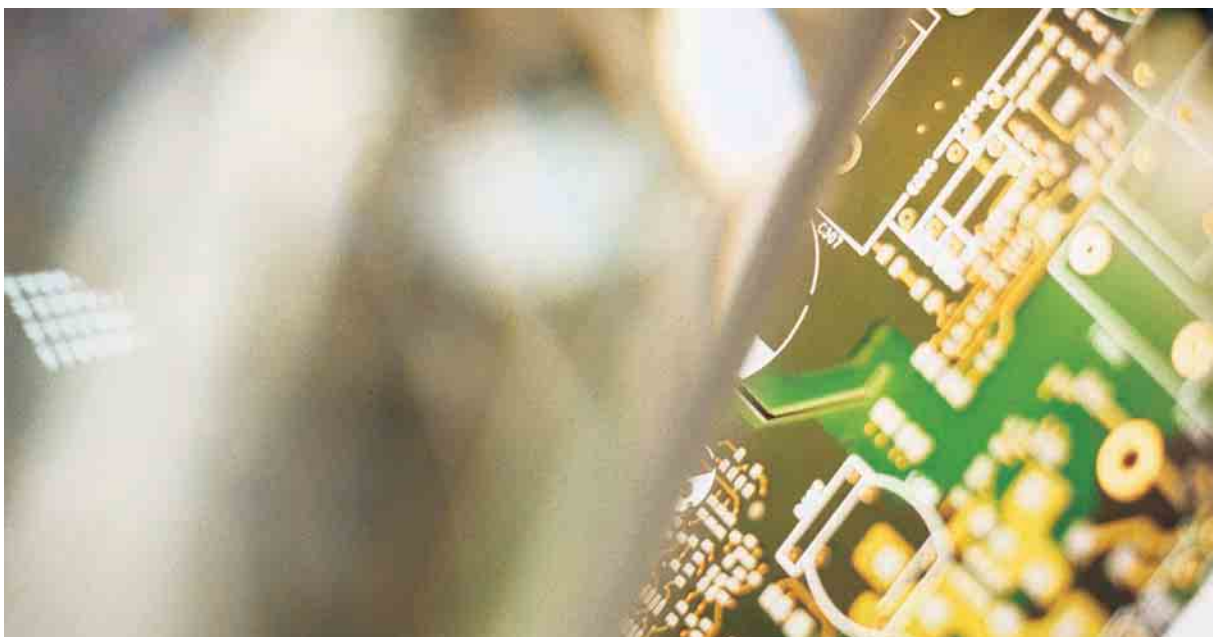


● **스마트 미터기 판매 (판매)**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 가구와 대부분의 기업에 가스와 전기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해 영국 내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1/3 이상 감소시킬 계획임
- 가스와 전기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용량과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게 됨
- 이 프로젝트는 매년 260만 가구씩, 향후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약 70억 ~ 90억 파운드 (약 12조 ~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KOTRA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의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1,330억 파운드 (약 23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들은 I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관련제품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내 판매 및 서비스 본부를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 유럽 지역에서 스마트미터기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영국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후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 높음

● **CCTV판매 (판매)**

- 2015년까지 영국 CCTV 시장은 연 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낮은 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으로 인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음
- 5년 전 설치된 구형 아날로그 CCTV를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CCTV로 교체하는 수요 있음
- 현재 영국시장에서 한국산 CCTV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월등한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과 판매 후 서비스 부재 등이 약점이 될 수 있음
- 가격은 한-EU FTA 이후 관세철폐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영국 내 판매 및 서비스 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판매 후 서비스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산 CCTV는 영국 시장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모범사례: 서비스 경쟁력으로 유럽시장에서 성공한 휴맥스

산업 / 기능	• 정보통신 / 판매	진출방법	• 신규설립 / Limited company
<p>영국법인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맥스 전체 매출의 약 95%는 해외시장에서 창출되고 있음 • 1997년 설립된 휴맥스 영국법인은 휴맥스 최초의 해외 법인임 • 2002년 영국 법인은 런던 오피스 개설과 함께 영국 내수 판매에도 주력 • 현재 영국 법인은 유럽의 대부분 시장을 총괄하는 판매 및 서비스 본부임 • 영국시장은 자체로도 의미 있는 규모의 소비자 시장일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을 위한 중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휴맥스는 유럽 내 3대 디지털 셋톱박스 공급업체임 • 개인용 디지털 녹음장치의 경우, 휴맥스의 영국 및 유럽 중요 시장 점유율은 약 50~80%에 달함 		
<p>성공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톱박스의 경우, 틈새시장인 일반 유통망을 통해 까다로운 유럽 개인소비자들에게 먼저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를 쌓은 후, 방송사 대상 영업에 돌입하는 시장 진입 전략의 성공 • 유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춘 적기 시장진입 • 표준 활동 등에서 국제적으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국시장을 선택 • 영국은 유통사 본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납품하는 체제로, 지역 또는 개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야 하는 여타 유럽시장에 비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에게 유리 • 전 유럽으로의 운송, 커뮤니케이션 및 인력 이동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인 영국을 기반으로 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구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외면하지 않는 등 치밀한 고객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음 		
<p>해결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까지 장기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 • 높은 수준의 인건비 등 고물가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전략 필요 (휴맥스의 경우 Belfast의 제조시설을 폴란드로 이전) • 디지털 방송 선진국인 영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요구하므로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꾸준한 자기 혁신이 필요함 		

4. 자동차 / 조선 / 기계 산업

한-EU FTA 자동차 / 조선 / 기계 산업 관련 내용

<p>EU측 수입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발효 후 한국과 유럽연합은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및 부품, 카스테레오,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부여 • 한-EU FTA로 한국 및 한국기업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및 피인수에 대한 유럽 업체들의 정서적 장벽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p>의료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관련 협의는 선언적 의미 또는 기존 제도를 확인하는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양측의 보건의료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 -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향상 - 국제관행에 부합한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 수용 요청을 고려하는 등 양자간 규제 협력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공급업체의 윤리적 관행 독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무그룹” 양측에 설치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자동차 부품 제조 (제조)

-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를 비롯한 4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영국에서 제조공장을 가동 중임
- 영국은 전 세계 6대 자동차 제조국이며, 유럽 내 4대 자동차 제조국임
- 2009년 기준, 연간 2백만 개 이상의 엔진과 1백만 개 이상의 완성차가 영국에서 생산되었음
-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영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현지 및 유럽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기회를 엿볼 수 있음
- 한국에서 영국시장으로 단순히 부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성차 업체에게는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임
- 한-EU FTA로 한국산 부품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 공장에서 모듈을 조립, 판매하는 사업 전략은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영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smmmt.co.uk/>)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선박 주요 부품 제조 (제조)

- 영국의 일부 조선 부품업체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 일부 조선 부품 부문은 기술력뿐 만 아니라 선주들의 신뢰, 브랜드 인지도라는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형 선박의 발주 시, 선주는 주요 부품 (엔진, 프로펠러 샤프트, 페인트 등)의 브랜드를 지정하는 경우 많아 선주들의 신뢰 또는 브랜드 인지도는 이익창출의 결정적 요소가 됨
- 한국의 조선업체 또는 조선 부품업체들은 선박 부품 제조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발주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음
- 한국은 EU산 선박 부품에 대해 즉시, 3년 또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바, 유럽에서 제조한 선박 부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영국의 조선 부품업체와의 협력 (합작회사, 인수합병, 기술제휴 등)을 통해 주요 부품 부문에 대한 이익을 일정 부분 내재화할 수 있음





● **선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 영국은 조선 엔지니어링(설계 포함) 부문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조선 엔지니어링 부문은 부품 업체 지정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
- 한국 조선 부품업체 또는 조선업체의 경우, 유럽의 조선 엔지니어링 업체들로부터 발주를 받아 단순 제조 납품하는 경우 많음
- 영국 현지 조선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력 (합작, 인수합병 등)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납품처 확보 및 고 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이익선 다변화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의료기기 판매 (판매)**

- 영국은 2008년 기준 약 37억 파운드 (약 6조2천억 원) 규모의 세계 5대 의료기기 시장임
- 영국 의료시장은 의료 기기부터 의료 소모품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영국 국가 의료 시스템 (NHS)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앙 관리형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음
- 영국정부는 현재 국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개혁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국가 기관인 NHS가 주도하는 시장의 특성 상, 가격 대비 품질이 가장 큰 경쟁력 임
- 한-EU FTA는 가치에 따라 의료기기의 적절한 가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어 적절한 이익보장을 유도함
- 브랜드 인지도가 낮더라도 가격 대비 품질 우위에 있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영국시장에서의 사업기회 있음



모범사례: 영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수 6개월 만에 흑자전환: DTR VMS

산업 / 기능	• 자동차 부품 / 제조	진출방법	• 인수합병 / Limited company
영국법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타이어가 2008년 12월 영국의 Avon Automotive의 방음, 방진 사업부를 인수하여 2009년 1월 사명을 DTR VMS Limited로 변경 • 적자였던 사업부를 인수 후 6개월 만인 2009년 5월 흑자로 전환시킴 •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기간 동안은 전 세계 경제가 신용위기로 위축되어 있었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DTR VMS의 흑자전환은 더욱 의미 있음 • 영국 현지의 아우디, VW, 재규어, 랜드로바 등의 완성차 조립업체에 고무 엔진마운트 등 방음 방진부품 공급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정직성을 갖춘 현지 근로자들은 DTR VMS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임 • DTR VMS 경영진은 인수 직후 영국 근로자들에게 작업량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구조 조정안을 제안했음. • 현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방침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였고, 회사와 일단 동의한 사안은 철저히 약속을 지켜 경영진과의 신뢰를 형성했음. • DTR VMS 경영진은 현지 숙련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감안한다면 인건비는 유럽 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 판매하는 효율적인 사업 전략 시행 • 영국의 뛰어난 대 유럽 물류 시스템은 영국 내 공장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내 완성차 공장에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줌 		
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다른 영국 근로자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경영진과 근로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함 •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인 영국 내 산업 커뮤니티에 참여가 필요함 		

5. 서비스 산업

한-EU FTA 서비스 산업 관련 내용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측의 서비스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한국의 115개 분야보다 훨씬 넓은 수준임 (WTO 서비스 분류 기준) • 전반적으로 EU는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 유지 보수 서비스, 자문 조사 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 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함 •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및 제3국의 동종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할 의무 부여 • 한국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은 한국 수출의 13.8% (미국은 11.0%), 직접투자의 34.3% (미국은 2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제 2의 교역 파트너임. (2009년 기준) - 한국 대기업들이 영국 내 제조거점을 동유럽 등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지역 본부나 영업 사무소 등 투자 건수나 규모는 오히려 증가 추세
<p>저작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 특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 품종권 침해상품의 영역까지 규정 •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 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 • 통관보류 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 • 단,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협정 발효 후 2년 간 시행 유예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 서비스 (판매)

- 영국은 한국기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유럽지역 본부로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므로, 한-EU FTA로 인한 한국기업의 유럽지역 진출 시 유럽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유럽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회계, 법률, 금융 등의 사업 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을 의미함
- 중소기업의 경우, 영국 현지의 대규모 사업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비용, 업무 처리 속도, 업무 유연성 등에서 적절하지 않아 한국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중소규모 사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수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요소로 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음
 - 영국 현지의 제도적 지식에 능통 (현지업체 및 인력과 연계 고려)
 - 한국 및 영국의 양측 사업 관행, 문화에 대한 이해
 - 한국 본사의 동종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극대화
 - 현지 대규모 서비스 업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틈새시장 발굴

● 동물 병원 (판매)

- 한국 수의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수의 서비스 상호자격 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이번 한-EU FTA를 통해 마련되었음
- 수의서비스 상호자격 인정 시 수의사의 상호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음.
- 영국에는 전체 가구의 약 43%가 약 2,700만 마리의 애완동물 (730만 마리의 애완견, 720만 마리 애완묘 포함) 을 기르고 있음
-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 따라서, 영국을 포함한 선진 유럽국들의 애완동물 관련시장은 경제 상황의 기복과 관련성이 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
- 영국은 영어 사용국이므로, 한국 수의사들이 진출하여 수의병원을 개업하는 데 있어 언어장벽이 낮은 편임

● **한국 식당 프랜차이즈 (판매)**

- 2009년 기준, 영국 외식업 시장규모는 약 80조원에 달함
- 런던은 국제 음식의 박람회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음
- 영국인들은 아시아 음식 중 인도나 중국식을 가장 친숙하게 여기며, 좀 더 색다른 것을 원할 때 일본 음식이나 태국음식을 찾고, 이마저도 익숙해진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한국음식인 것으로 나타남
- 한-EU FTA 이후 한국기업 진출 확대로 한국에 대한 관심 늘어나면서 음식을 포함한 한국 문화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인들에게 중국음식이나 타이음식이 강렬한 향신료로, 일본음식이 고급 수산물 요리라는 이미지인 반면, 한식은 건강음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전통 유대음식 인증 프로그램인 '코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음 '코셔'는 종교적 의미를 띠며 유럽인들에게 건강음식 인증으로 간주되어 전체 유럽인들의 40% 가량이 음식을 선택할 때 '코셔' 인증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코셔' 인증을 활용하여 건강식임을 강조한 한국음식은 영국에서 도전해 볼 만한 프랜차이즈 사업임
- 영국인들의 펍 문화 등 외식 패턴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이나 메뉴 등을 개발할 필요 있음

● **특허 및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상업화)**

-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 형사 상 규정이 한-EU FTA에 포함되어 한국과 EU를 아우르는 규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인터넷, GSM 서비스 휴대폰,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듀얼 모드 3G, 최초의 프로그래밍 컴퓨터, 광섬유, 아이팟과 같은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영국에서 탄생하는 등 영국은 혁신적인 특허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의 산실임
- 약 45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 에너지, 조선해양, 자동차 등의 첨단 제조기술 연구센터가 2010년 초 글래스고 공항 근처에 개관하는 등 탄탄한 첨단 기술 연구센터 기반을 자랑함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 간 영국 내 총 특허건수 중 40%는 직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의해 등록됨
- 영국은 2007년과 2008년 기간에만 외국 기업들로부터 182 건의 고급 산업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를 확보함
- 아시아의 탄탄한 제조기반과 시장 특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특허 사업화 서비스업자는 영국의 창의적인 원천기술 특허권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 기회 발굴 가능함
-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영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웹사이트는 <http://www.ipo.gov.uk> 임

모범사례: 영국 기업금융 서비스 부문 40년 이상 영업 중인 외환은행

산업 / 기능	• 금융(은행) / 사업 서비스	진출방법	• 신규설립 / 외국법인의 지점
영국법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은행 런던지점은 1967년 설립됨 • 외환은행 런던지점의 주 업무는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금융 및 수출입 지원 / 현지 금융기관과의 영업 /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 주재원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영업 등임 • 외환은행 런던지점이 관리하는 시장은 영국, 아일랜드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포함함 		
영국에서의 영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BC, RBS, Barclays를 비롯하여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포진해 있는 런던에서 40년 이상 영업 중 • 외환은행 런던지점은 전 세계 우수 금융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 영역을 발굴하여 꾸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음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고객층인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객들을 관리함 •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적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 ~ 80년대: 중동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의 금융지원 - 90년대 ~ 2000년대 초반: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관련 현지에 투자한 대기업 지원 - 현재: 다양한 산업, 다양한 규모, 다양한 형태의 한국 기업 지원 - 한-EU FTA 이후: 한국과 영국 기업들 간 무역 및 투자 증가에 대비 • 현지 은행들과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비용구조 - 빠른 업무 처리 -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은행 대비 규모 및 자금조달 능력 열세에 따른 경쟁력 확보필요 •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을 쉽게 바꾸지 않는 영국인들의 보수성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해야 함. 스스로의 역할을 개척하는 자세가 필요 		

6. 금융 / 기타 산업

한-EU FTA 금융 산업 관련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금융협상은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 •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글로벌한 분석, 평가 업무를 본, 지점 간에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 • 신규 금융상품 도입으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신금융 서비스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 - 한국에 있는 EU 금융기관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하고 국경간 거래를 통한 공급을 불가 - 한국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 및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투자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상호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상호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 면허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직능 단체 간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제도화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EU는 수익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 유지 보수 서비스, 자문 조사 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위성방송 등 통신 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 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함

영국 사업개발 유망분야

● 금융상품 개발 (연구개발)

- 300년 역사의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인 런던 증권거래소의 본거지인 런던은 국제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임
-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는 영국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의 위험을 최소화 함
- 금융, 법률, 회계 및 경영 컨설팅 분야의 최고 업체들이 모여 융합 효과를 내고 있는 영국은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가장 적합한 곳
-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금융 메커니즘으로 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됨
- 한국의 금융업체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를 겪으며 강한 체질적 발전을 이룩함
- 미래에셋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수준의 금융 상품 개발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음

● 금융상품 판매 (판매)

-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융업체들이 모여 경쟁하는 금융상품의 국제시장임
- 경쟁력 있는 한국의 자산 운용사 등 국내 금융시장 플레이어에게 런던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을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음
- 한국 및 아시아 금융시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국 및 아시아 현지 업체들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음
- 한-EU FTA를 계기로 유럽 내 한국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금융업체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가능성 있음
- 단, 한국 금융업체들이 런던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경우, 한국식 방법을 고집하기 보다는 런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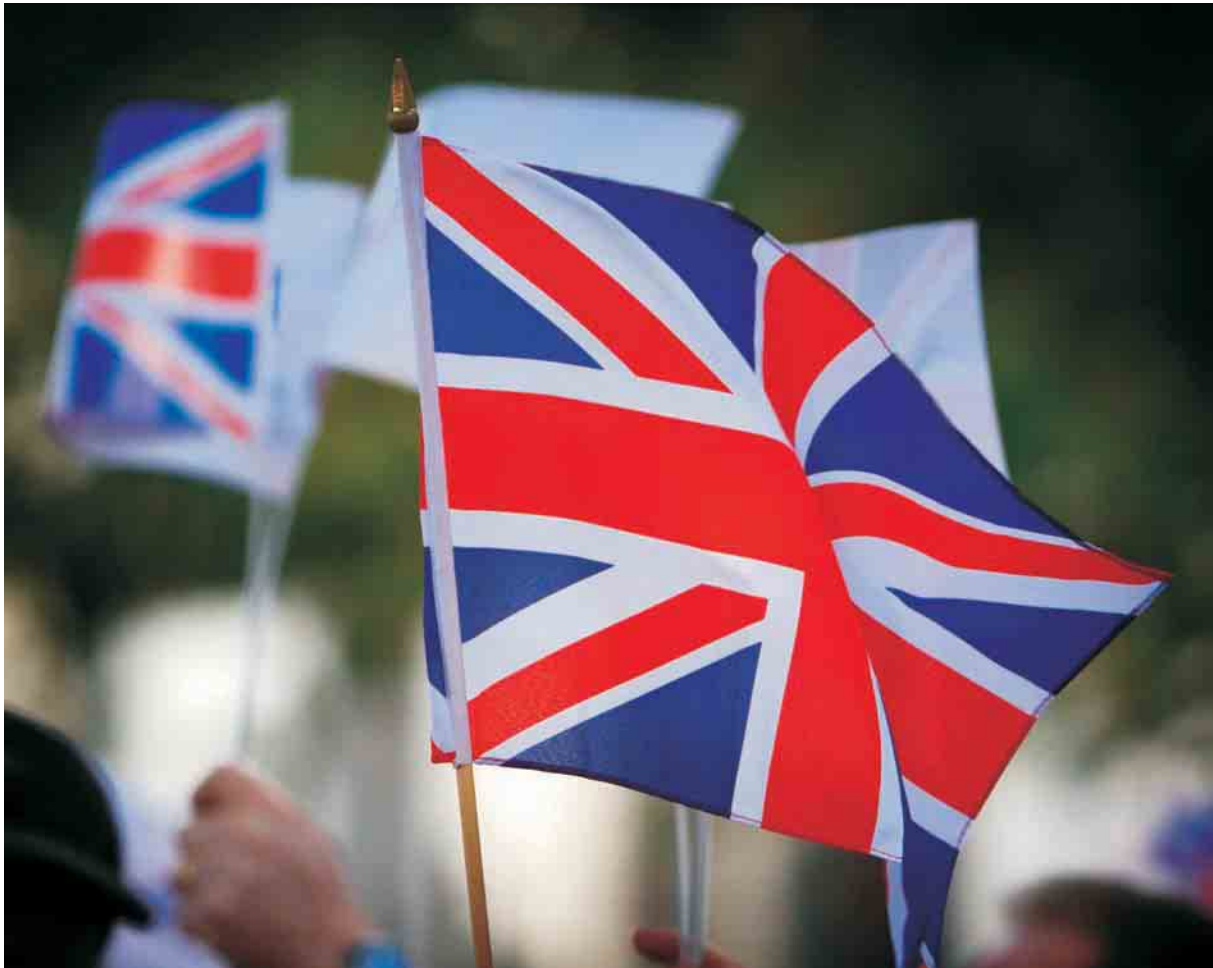
● 사회 기반시설 개보수 (판매)

- 영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활발한 개보수 작업 진행 중
- 영국의 노후한 원자력 및 석탄발전소 등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 2020년이 되면 영국 전체 발전량의 25%에 달하는 발전소들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런던의 관문인 히드로 공항 확장 공사를 하면서 현대 로템 제품을 공항 탑승교 제품으로 선택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호전되고 있음
- 2010년 5월 한국 코트라(KOTRA)는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허치슨항만과 연쇄적으로 공공조달 협력 양해각서 체결하는 등 관련분야 교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영국 건설산업 참여는 일부 기자재 수출 정도에 국한되었지만, 한-EU FTA 이후 엔지니어링 부문 등의 상호자격 인정 문제가 해결되면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도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금융상품 중개 (상업화)**

- 런던 금융시장은 특유의 개방성과 국제적인 면모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금융업체들이 모여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곳임
- 전 세계 모든 금융업체들이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내놓는 시장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 금융상품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함
-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신 금융 서비스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고 이를 한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 런던 시장에서 소개된 신상품을 한국의 금융업체에게 중개하는 사업기회가 존재함
- 국제 금융시장의 업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금융 소매업체 및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내용도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라면 런던과 서울 사이에서 금융상품 중개 사업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음



모범사례: 실력과 독심으로 성과 보기 시작한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국법인

산업 / 기능	• 금융 / 판매	진출방법	• 신규설립 / Limited company
<p>영국법인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국법인은 2007년 3월 영국에 일반법인으로 설립된 뒤 10월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획득함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국법인의 자산운용업 인가획득은 미래에셋이 홍콩과 인도에서 받은 이후 세 번째 해외시장 인가임 • 현지 금융상품 판매사들을 통해 미래에셋의 금융상품을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 2011년 4월 21일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룩셈부르크에 설정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코리아주식형펀드가 순자산 2억불을 돌파함 • 영국법인은 뛰어난 매출실적으로 미래에셋코리아주식형펀드 순자산 2억불 돌파에 크게 공헌함 		
<p>성공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과 브라질 등 브릭스 시장 및 미국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운용역량을 갖춰 런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함 • 현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다는 회사 정책으로 영국 현지의 금융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현지의 금융 역량을 내재할 수 있었음 • 런던 금융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국법인은 현지시장을 가장 잘 아는 아시아 운용사임을 내세워 아시아 및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에 주력함 • 장기적인 시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일관되고 강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함 		
<p>해결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금융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원이 필요함 • 한국 금융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여전히 개척 단계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영국 비즈니스를 위한 조언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들 중 57%가 영국에 본부를 둔다. 영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효율적인 산업 인프라는 유럽 전역을 관할하기에 손색이 없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영국의 장점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영국에 유럽 최대 규모의 한국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매력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150여 개의 한국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영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 영국의 사업환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제성과 개방성은 한편으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영국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를 찾기보다는 영국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관행과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국의 사업환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영국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 ▶ 역사적, 사회적으로 일찍이 국제화된 영국은 전 세계인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 영국은 전 세계 공용어이자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영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
- ▶ 영국은 효율적인 인적, 물적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럽시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의 입지로서 적합함
- ▶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숙련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국의 고급 인력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큰 자산임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영국인들의 역량은 이미 유명하지만, 자동차, 패션 등 영국 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문의 제조업 근로자들에 대한 평판도 좋음
- ▶ 탁월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영국은 여러 산업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음 영국은 패션, 캐릭터, 공연 등 문화적인 부문에서 탄소 배출, 인권, 동물 보호 등 정치 사회적인 부문까지 이슈를 선점하고 글로벌 기준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영국은 유럽 지역 내 가장 큰 한국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이므로 먼저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통해 영국 내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음

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진출할 때 충분히 준비하여 극복할 사항들이다.

- ▶ 영국은 높은 물가로 인한 높은 사업 비용을 극복하려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 뒤 진출해야 함
- ▶ 현지 직원 및 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갑을 방식의 수직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자 간의 수평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 있음
- ▶ 한국의 사업 관행 보다 훨씬 더 계약서 상 문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계약서 문구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함
- ▶ 한국식 관행으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사소통 하는 습관이 필요함
-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부드러운 한국식 의사소통 방식은 현지에서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의사소통으로 여겨질 가능성 있음
- ▶ 사업 상 스케줄 관리의 경우, 한국보다 장기간의 계획이 미리 확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만나려면 충분한 기간 전에 약속할 필요 있음
- ▶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영국 내 산업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 있음

감사의 글

영국 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영국 무역투자청(UKTI)은 국제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는 영국의 정부기관이다. UKTI는 영국 기업들의 수출업무 및 외국 기업들의 영국 투자업무를 지원한다. 영국에 처음으로 진출하려는 경우나 현재 하고 있는 영국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경우, 혹은 영국에서 협력기업을 모색하는 경우 UKT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국 무역투자청 (UKTI)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UKTI 홈페이지 (www.ukti.gov.uk)를 참고하면 된다.

코트라 런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London KBC)

런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는 코트라의 런던 지부로서, 영국 및 아일랜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시장 개척 사업, 조사 사업, 투자유치 사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사화 사업 등이 있다. 런던 코트라 비즈니스 센터는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국 현지 한국 기업인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런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London KBC)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wps/portal/dknew>)를 방문하면 된다.

영국 현지 및 한국의 기업 및 기업인

한국과 영국 양국 간 활발한 교류 확대를 위하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준 많은 기업 및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특히, 오로라월드(주), Lotte Chemical UK, 휴맥스, DTR VMS, 외환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협조에 감사한다.

아이알시 (IRC Limited)

IRC는 1982년 이래 서울에서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사업적으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이다. IRC는 시장조사, 파트너 검색, 전략수립, 협상, 법인설립 등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RC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홈페이지 (www.irdtd.com)를 방문하면 된다.

영국 내 한국 투자 기업



SCOTLAND

COMPANIES	SECTOR
ODOSAN BABCOCK	Boiler Manufacturing

EAST OF ENGLAND

COMPANIES	SECTOR
HANJIN SHIPPING	Logistics
MAXON DIC	Private Mobile Radio
SEVON CELLONTECH	Biotechnology

LONDON

COMPANIES	SECTOR
CHEL WORLDWIDE	Advertising
D&K JEANS (EXR)	Fashion
DARIM VISION	Creative
BHC KOREA	Cosmetic
DBUSS	LCD TV (EHQ)
EJ	Energy
G&D EUROPE	Creative
HANA TOUR	Tourism
HANDYSOFT	Software
HANWHA SECURITIES	Financial Services
HARAX INFO TECH	Mobile Contents
HARIND LTD	Game
HIHO METAL	Advertising
HWASEUNG	Sports Fashion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struction
INDUSTRIAL BANK OF KOREA	Financial Services
INDUCEAN	Advertising
KEON A	ICT
KOICA LONDON	ICT Business Center
KOCCA	Creative Industry
KOREA CULTURE CENTER	Culture Center
KOREA LIFE INSURANCE	Financial Services
KOREA TELECOM	ICT
KVF	Creative
LG DESIGN CENTRE	Creative
LOCK & LOCK	Household Goods
LS CABLE	ICT
MJ MOBILE	ICT
MIRAE ASSET	Financial Services
SAMSUNG DESIGN CENTRE	Creative
SAMSUNG HEAVY INDUSTRY	Heavy Industry
SAMSUNG LIFE INSURANCE	Financial Services
SK ENERGY	Energy
SK NETWORKS	Financial Services
SK SHIPPING	Shipbuilding
SK TELECOM	ICT
STX SHIPBUILDING	Shipbuilding
T PLEX (MBIZ GLOBAL)	ICT

SOUTH EAST

COMPANIES	SECTOR
AURORA	Soft Toys
DM TECHNOLOGY	LCD TV (EHQ)
ODOSAN BABCOCK	Global HQ
ELK	ICT
EWOD & VATECH	Medical Devices
GMP	Laminating Films
HYUNDAI MOTOR	Automotive
JEC'S UK (EHQ)	Agriculture
KIA MOTORS	European Sales Office
LG ELECTRONICS	ICT
NC SOFT	Online Games
SAMSUNG ELECTRONICS HQ	Quality Control
SAMSUNG ELECTRONICS RESEARCH CENTER	R&D
SHINMOGRIM PAPER	Paper

SOUTH WEST

COMPANIES	SECTOR
DB ACUPUNCTURE	Acupuncture
OTR VMS LTD	Auto Parts
MIRTEC EUROPE	Machinery
WIDERTHAN.COM EUROPE	Mobile Contents

NORTH EAST

COMPANIES	SECTOR
COMESYS	Auto Parts
LOTTE GROUP	Chemical

NORTH WEST

COMPANIES	SECTOR
SAMSUNG ELECTRONICS	American Service Center

UK Trade & Investment is the government organisation that supports companies in the UK doing business internationally, and overseas enterprises seeking to set up or expand in the UK.

Contact:

Tel: 02 3210 5613 / Fax: 02 736 6241
 Email: invest.korea@fco.gov.uk
www.ukti.gov.uk

"More companies have established their European Headquarters in the UK than in any other country – indeed, the UK is home to over half of all European Headquarters."

European Investment Monitor,
Ernst & Young.

URN 10/1801 APKOR – Investor map © Crown Copyright

This map illustrates a selection of companies, which have chosen to invest or expand in the UK.

Fast track to the world ^{UK}

Disclaimer:

본 보고서는 한국 및 영국의 해당 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들과의 인터뷰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개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복수의 인터뷰와 기타 자료를 비교, 일관된 논리성을 확인하며 작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터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 내 모든 사항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토의무는 독자에게 있으며, 본 보고서를 작성한 컨설턴트나 UKTI 어느 측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본 보고서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사업 기회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EU FTA로 인한 변화요인 및 기회요인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영국에 사업 진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면 UKTI 또는 IRC Limited에 연락하면 된다.



영국 무역 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www.ukti.gov.uk

Tel: 02 3210 5613 / Fax: 02 736 6241

Email: invest.korea@fco.gov.uk